

아시아를 향해 문을 열다, 캐나다 下

불과 몇 년 전까지도 우리에게 캐나다는 미국의 인접국일 뿐이었다. 하지만 9.11 이후 캐나다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대체하는 경제권으로 등장했다. 특히 서부 캐나다의 경우, 수많은 아시아권 이민 및 교육 인프라를 통해 아시아권에 가장 친숙한 지역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같이 아시아를 향해 문을 열고 있는 캐나다의 일반산업 세부 현황과 유망진출분야를 공략하는 전략을 모색해본다.

글 김태형(INKE 밴쿠버 지부 의장, APAC Investment Ltd. CEO)

canada

The Hottest Industry 'IT & BT' in Canada

캐나다의 향후 유망분야로는 역시 지식집약적 산업인 IT산업과 바이오산업을 들 수 있다. 캐나다 경제는 2002년 마이너스 성장을 벗어나 최소한 2010년까지 호조세가 유력하다. 주요 IT산업 분야별 전망 역시 2000년 15억 캐나다달러의 규모에서 올 2006년 43억 캐나다달러로 급진장이 예상되고 있다.

IT산업의 경우 북미의 또 다른 실리콘밸리로 꼽히는 BC주가 산업거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Microsoft사는 밴쿠버를 중심으로 BC주에 포진하고 있는 기술 중심의 순수 하이테크 산업에 매료되어 현 시애틀 본사를 밴쿠버로 일부 이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동일문화 및 동일언어권으로 미국 첨단기업과의 전략적 제휴가 원활하다는 점과, 현지 기업공개 및 미국 증권시장 진출이 용이하여 자금시장혜택이 타국가에 비해 월등히 크다는 점, 무엇보다 이동거리가 미국과 한 시간 이내인 지리적 이점이 크게 작용한다. 또한 Vancouver Island Technology Park(VITP) 조성 및 밴쿠버의 필름 및 게임산업 육성을 돕고 있는 BC주정부의 기술산업 육성지원도 빼놓을 수 없는 캐나다시장의 강점이다. 특히 E-mail Security System 분야는 정부차원의 수요 증가가 이뤄지고 있다.

바이오산업의 경우 캐나다는 전 세계 바이오산업 순위 8위, 바이오기업 보유수 1위, 바이오산업관련 수익창출 3위를 자랑한다. 즉 고품질의 인력구조, 정부의 투자지원, 세금감면 등의 지원을 통해 캐나다에서 가장 '뜨고 있는' 분야가 바로 바이오산업이다. 바이오산업의 이상적인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는 캐나다는 현재 활발한 R&D 투자가 이뤄지고 있으며 미국의 M&A 대상시장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유망 기타산업으로는 역시 천연자원관련산업을 꼽을 수 있다. 석유·가스·희귀광물(다이아몬드, 우라늄)·기초금속·목재 등의 다양한 천연자원의 탐사, 채굴, 운송, 투자는 여전히 캐나다의 유망산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반산업 세부 현황

- ➔ **통신장비산업** 캐나다에서는 정보통신 서비스분야의 규제완화와 더불어 통신 및 개인네트워크 증가로 인한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초고속 광섬유의 광범위한 이용은 인터넷 사용증가는 물론 정보통신의 디지털화를 이끌고 있다. 여기에 광대역 및 위성통신기술 도입으로 통신기술과 정보기술의 결합이 활발하여 향후 통신장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연간 수입규모는 약 30억달러에 이른다.
- ➔ **컴퓨터 및 주변기기산업** 전국에 구축된 통신망으로 인해 가정용 컴퓨터부터 중소기업, 대기업까지 컴퓨터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다시 컴퓨터 교체 수요의 급증으로 이어져 한국, 미국, 대만산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수입이 증가하는 추세로 연간 수입 규모는 약 80억달러로 추산된다.
- ➔ **전자부품산업** 전자부품산업 역시 정보통신, 컴퓨터장비산업 부흥에 힘입어 크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이다. 이 분야의 캐나다 회사들은 생산량의 80% 이상을 수출에 치중하고 있다. 이는 해외수출을 위한 최종제품의 중간재 수출로, 따라서 전자부품산업의 경우 중간재 생산을 위한 수입규모가 연간 90억달러에 육박한다.
- ➔ **석유 및 가스탐사장비산업** 풍부한 에너지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캐나다의 경우 최근 천연가스 가격의 상승 및 국제원유 가격의 상승세로 석유 및 가스개발산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전통적인 에너지자원 지역인 Alberta주와 Terra Nova유전의 석유개발사업은 물론 캐나다 동부 해안지역에서도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동(銅) 생산 및 탐사설비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도 빈번하다.

캐나다 시장 진출 시 유의 사항

훌륭한 투자처임과 동시에 유망한 수출지역인 캐나다에 국내 벤처가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기억해야 한다. 아직도 한국의 벤처기업들은 대부분 엔지니어 위주로 구성되어 마케팅과 세일즈 기능이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해외자본의 투자유치 경험이 적어 관련지식 정보도 부족하며, 글로벌 네트워크가 빈약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중소벤처기업을 바라보는 해외의 시각이기도 하다.

따라서 비단 캐나다뿐만이 아니라 해외진출 벤처기업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INKE 및 KOTRA와 같이 검증된 우수한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더불어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신용을 쌓아야 하는 점도 유념하는 한편, 진출기업 간 공생 전략 추구도 중요하다. 반드시 국내시장에서 검증된 제품으로 진출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1차산업부터 첨단 하이테크산업까지 고루 발달한 캐나다. 확실한 제품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 캐나다시장의 문을 두드려 보자. 생각보다 훨씬 큰 기회가 한국의 벤처들을 기다리고 있다.

◎ 캐나다 밴쿠버 지부 연락처

- 김태형 의장(STEPHEN T.KIM)
- 주소 : #219-4501 North Rd, Burnaby, BC, V3N 4R7, Canada
- TEL : +1-604-415-5707 / FAX : +1-604-909-3871 ● E-mail : stehpen@apacinvestment.com